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추가모집…의료 정상화 분기점 되나

전남대병원 오늘 원서 접수 마감
조선대병원 내일…복귀여부 주목
군 입대·인턴 수련단축 막판 변수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병원을 떠난 지역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수련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위한 문을 열어준 만큼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의료 정상화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27일까지 레지던트와 인턴을 추가 모집한다는 공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레지던트는 1년차와 상급년차를 나눠 선발한다.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24개 과목에서 별도 정원 10명을 포함한 총 94명을 모집 중이다.

레지던트 상급년차는 지난해 정원 중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한다.

전남대병원은 또 본원과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등에 배치할 인턴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별도 정원 3명을 포함해 총 109명이다.

조선대병원도 오는 28일까지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년차, 인턴을 추가 모집 중이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 등 19개 과목에서 레지던트 1년차 47명을 선발하며 상급년차는 작년 정원 중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한다. 인턴은 결원 정원 35명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기독병원은 오는 29일까지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년차를 각각 8명 추가 모집하며, 인턴은 27일까지 16명을 모집한다.

전공의는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로,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시험에 통과해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에 다시 한번 예외를 주는 수련특례를 적용했다.

통상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하지만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하반기 정기모집 전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이번 추가 모집 합격자는 6월 1일 자로 수련을 개시하며 이들의 수련 연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연차 전공의는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5월 내엔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 응시할 경우 6월 1일 자로 수련을 개시해도 정상 수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 고연차(과목에 따라 3년차 또는 4년 차)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복귀하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입영 연기와 인턴 수련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턴이 이번에 복귀해 내년 5월까지 12개월 수련을 마치면 내년 3월에 레지던트 1년차 수련을 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군 미필 전공의들이 지난해 사직과 함께 입영 대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이 나오면 입대해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이번에 복귀하는 인턴의 수련기간을 9개월로 단축해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다.

군 입대와 관련해 복지부와 병무청은 복귀 규모와 군 의료인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최운창 전남도의사회 회장은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와 인턴 수련 기간 단축 등 제반 여건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 모집 지원자는 극히 드물 것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전통 부채 만들어요" 26일 광주 서구 서창동에서 열린 '전통이 피어나는 단오예(禮)'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전통 부채를 만들고 있다. 김태규 기자

북구, 공동주택 갈등·분쟁 예방사업 추진

광주 북구는 갈등 없는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행복 공동주택 만들기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행복 공동주택 만들기 통합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거주 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마찰과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북구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은 △주택관리 상담센터 운영 △갈등 해결 전문가 컨설팅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등이며, 분기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할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먼저 법령 및 규정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주택관리사의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관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자문 등 공동주택관리 실무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상담'과 분쟁이 다수 발생한 공동주택 단지를 직접 조사하는 '현지조사'로 구분해 진행된다. 또한 '갈등 해결 전문가 컨설팅'은 법령 외 갈등 민원이 발생해 법령 자문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 '갈등 해결 컨설팅단'과의 상담을 연계해 당사자 간 갈등 해결을 도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갈등 및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최환준 기자

'제주 교사 사망사건' 시·도교육청 추모공간 운영

심리상담 등 교권보호대책 추진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와 교직 스트레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본청 이음광장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27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추모공간은 오는 30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원하는 교직원, 학생, 시민 누구나 애도를 표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시교육청은 추모공간 조성 외에도 누리집에 숨진 제주도 교사를 비롯해 교육활동 중 순직한 교사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사이버 추모관이 개설한다.

특히 사이버 추모관을 통해 교육활동관련 심리 상담, 법률상담 신청, 각종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권 자료실 이용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고인을 애도하며 다시 한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교육활동을 침해받는 교원을 도울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교사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26일부터 30일까지 청사 1층 외부에 추모공간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도내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가족 누구나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추진중인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교원 심리치유 지원 확대, 교육지원청 특이민원 대응팀 구성 등의 정책들이 학교에서 실질적인 교사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들을 점검키로 했다. 최환준 기자